

## 학교건축의 어제와 오늘

Educational Architecture, Yesterday and Now



임 종 업 / 인하대 건축학과 교수  
Lim, Jong-Yup / Professor, Inha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teatro@inh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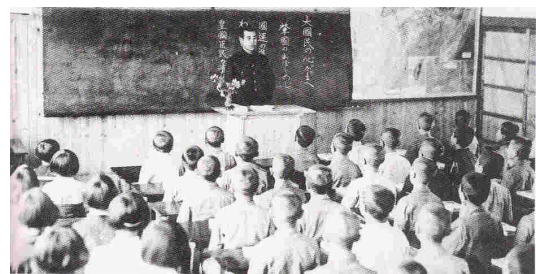
### 교육기본법의 정신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의 정신은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있고 이로 인해 교육의 기회균등이 주어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학의 기회균등과 학습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구분은 6,3,3,4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1984년 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 제도화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1997년도에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교육 시설부 고시 제1997-15호로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 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에는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체계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변동, 과학 및 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 산업, 취업구조의 변혁,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에 대폭적인 변화가 작용되었다. 특히 학교건축 시설로써의 환경개선과 교육공간구성의 연구와 발전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우리의 근대교육

우리나라에 근대교육이 도입된 것은 서양으로부터 일제를 통해 반 강제적으로 유입되었던 경로에 의해서였다. 해방 후에 정부에서는 공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제반의 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1954년도에 의무교육이 완성

된다. 1962년에서 1976년도까지 3차에 걸쳐 의무교육시설 계획이 정부의 배려로 이루어졌다. 1962년 당시 문교부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시설건축의 표준설계지침서를 개발하였다. 그 후 인구증가를 포함한 도시의 급격한 성장은 건축기술의 향상과 교육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로 학교규모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972년도와 1975년도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의 표준설계도를 바탕으로 1980년 다시 연구보완 한 학교교사 표준설계도를 작성해 전국을 대상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이는 학교건축의 환경수준과 학교시설의 업무능력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디자인의 측면에서 크고 작은 아쉬운 점들을 숨길 수는 없었다.



### 7차 교육과정

한편,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7차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의 기준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 기준은 초, 중등학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초, 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문서로 결정 고시한 교육내용으로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한다. 이 기

준에는 초·중등 학교에서 편성 운영해야 할 학교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에 관한 국가수준의 기준 및 기본지침이 제시되어있어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요구에는 그에 적절한 시설의 규모와 조건, 그리고 프로그램에 합당한 공간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선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 육성, 2) 국민기본교육과정 체제도입, 3) 수준별 교육과정도입, 4) 교과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5)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 확대, 6) 교육과정 평가체제의 확립 등이다. 건축으로 바라보는 교육시설은 이상의 목표를 담아내고, 달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며 각 학교마다 제안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다양성의 폭은 무척 제한되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여건에서도 여전히 해법은 디자인의 가능성과 영향력에 있음을 기대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 우리의 우수교육시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시설학회에서 그 동안 진행되었던 우수학교시설선발을 통해 수집하고 정리되어있는 '우수 학교 시설집'을 리뷰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간은 지난 15년을 기준으로 1998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흐름을 되돌아 본다.

먼저 학교 교육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디자인의 방향은 대부분 비슷하거나 심지어 동일하기까지도 하다. 즉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목표로는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위한 종합적인 교육환경'으로 이것은 매우 보편적이고도 이상적인 면이 있기도 하며, 통칭적인 그 목적성으로 때로는 다소 추상적이기까지 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이어야 하는 디자인 목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선은 건축의 대상지 상황에 따른 지형에 적합한 자연 친화적 공간이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안정성과 기능성, 신체장애자를 위한배려, 자원과 에너지 절약,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원할 함 등이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있는 교육공간이 필수적이며, 건물과 실외시설의 일체감이 있는 계획인지가 조건으로 그 바탕에 내제되어있는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는 차별화된 교육공간의 제안을 요구되고 또 지역성을 반영한 디자인은 앞에 것에 비해 추가적인 설계가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에 준하여 설계되어야하는 현실에서는 추

거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교과동의 전면 남향배치, 지형에 순응하여 시공건설의 효율화, 합리적인 영역분리와 조닝계획, 효율적인 내·외부 동선 계획, 쾌적한 환경을 위한 친환경 그린 공간계획정도가 교육시설을 디자인하기 위한 디자인 방향의 거의 전부가 되어있다.

## 디자인으로 본 교육시설

설계를 진행하는 각각의 설계실무 디자인팀과 시공에서는 우선 지켜야 되는 규칙과 디자인의 자율성 사이에서 다양한 고민과 갈등을 지니게 된다. 언제나 이를 관통하여 시도하고자하나, 디자인이 선정되는 과정과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여전히 제한된 디자인의 한계를 체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시설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지, 어떤 공간이 교육과 연계된 진정 지혜로운 방법이고, 실효성을 위한 노력으로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시대의 변천을 통해 이루어온 외형적인 발전 속에서도 늘 허전함과 후회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것이 오히려 '위대한(?) 퇴보'가 아니었는지?, 무엇이 담담하고 소박하지만 진정한 진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 1998-2012

우선 우리의 지난 시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교육시설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98년과 1999년도의 교육시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학교에서 철골조 공립교사의 건설이 시도되었고, 현대화되어가는 농어촌 교육시설에도 새로운 바람이 시작되었던 시점이다. 또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시설이 함께 설계되었고, 일반교실과 교사연구실 그리고 화장실이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다른 아이디어로 3학년 단위의 학년별 교실 중앙에 유리 칸막이로 된 교실이 배치되기도 한다. 개별적인 중정 활용 아이디어도 미약하기는 하지만 적용되었다. 일부지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열린교육을 위한 공간과 수영장이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한편 특수학교를 위한 새로운 학교건축이 많은 대중들과 전문가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시기다.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을 잘 모르던 시기에 좋은 시도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하여 학생들의 심리상태와 불편함의 조건을 배려하여 주광색의 조명과 바닥 패널히팅까지도 섬세하게 고려하였

다. 일부의 디자인으로 눈에 띄는 것은 팀 티칭에 유효한 공간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서 소규모 학교들의 통합을 디자인에 반영하였고, 학교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동시에 디자인하여야 했다. 다양한 학습에 대한 연구는 같은 학년 2학급을 1의 유니트로 만들어 교사연구실과 다목적실 그리고 생활공간을 하나로 만드는 디자인이 시도되었다. 또한 일부 국제학교에서는 생활관을 중층에 두고 상부는 기숙사(야간 공간) 하부는 교실동(주간 공간)으로 입체적인 연결을 만들기도 하였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 택지개발 내, 혹은 재개발지역의 자투리땅에 새로운 신설학교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동별 교사의 형태들이 다양해졌고, 열린 교실의 적용이 활발해졌다. 외부공간의 특성으로는 학교담장을 없애고 화단을 통해 자연석 치장 쌓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의 열린 개방감을 적용하였다. 7차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수준별 학습과 융통성 있는 교육을 위한 평면의 배려가 두드러진다. 외부 입면에서 재질감의 다양성한 변화를 적용 하였으며 연출을 넘어 색채 심리적인 디자인을 고려한다. 더하여 입면의 새로움을 위해 가벽은 물론 전면 커튼월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일부학교에서는 학교 내 측면 벽을 활용하여 아트 월을 조성하기도 하였으며 이것은 새로운 학교의 상징성을 찾기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마을과 동네의 장소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001년도에서는 농어촌에서 소규모 초 중교의 통합을 고려한 디자인이, 동시에 지역사회와 열림 평생교육의 장소로 활용되는 지방 지역의 진정한 문화 중심성을 확보하는 디자인이 강조된다. 자연스럽게 관리공간은 교사동 1층 중심에 자리하게 되고, 기능적인 분리를 통해 지역개발시설을 최대한 고려한다. 홈페이지의 등장도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해진다. 내부 공간에서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알코브 공간과 Open space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그룹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2002년도에서는 2001년도와 크게 다른 점은 없으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정보학습관의 중앙배치가 강조되고 특별교실과 관리 지원동을 교사동 중앙부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학교를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대화 시범학교들 중에는 기존의 시설을 없애지 않고 리모델링 통해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보완을 디자인에서 많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건물의 저층화로 친환경에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운동장을 교사동의 후면에 배치하는 시도가 있

었다. 이를 통해 작은 마당의 활용을 달리 생각하게 하였고, 교과전담교실의 공용교실, 재량 특별교실 수준 교실등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만들어졌다. 핑거형 배치에서 교실군 별 계단실의 분산배치로 동선의 효율성을 시도하였다.

2003년도에는 입면에서 외부 차양시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빛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또한 1층부를 적극적으로 열어서 폐쇄적일 수 있는 공간감을 확장하였고, 이야기 마당, 놀이마당 등을 만들어, 고밀도 학교시설에서 입체적인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특수 고등학교의 사례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법론을 통해 학생들 간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에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미디어 갤러리나 24시간 존 등을 통해 휴식 이상의 기숙사의 정주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열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로는 개별제어가 용이한 히트 펌프 냉 난방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지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교사동의 고층화 사례도 자주 등장하였다.

2004년도에는 배치 및 매스 계획에서 보다 입체적인 구성이 등장한다. 즉 저층부는 독립적인 배치인데 상층부는 영역들 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는 옥내 외에서 학습공간의 다양한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료의 활용에서도 개성있는 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되었다. 입면에서도 일반교실은 물론 특별교실에서도 곡선을 도입하여 친숙함과 다양성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재료의 선택에서는 보다 강한 내구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및 에너지 효율에도 적용되었다. 입면에서는 철골조를 사용하여 보다 경쾌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학교시설이 많이 등장하였다. 매스가 분절이 많아지면서 연결브리지나 코아가 외부의 입면요소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외부에서 공간의 흐름과 동선의 암시를 나타내고자 함이었다.

2005년도는 학년별 독립공간의 강조로 교과실과 준비실 그리고 교사연구실의 조합이 하나의 블록으로 제안되었다. 전반적으로 입면이 단순해지면서 매스의 느낌을 강조하게 되었고, 외부에서부터의 공간의 전개 확장이 하나로 읽히도록 시도한 것이 많았다. 때문에 면과 선의 요소가 이전의 전형적인 교사의 입면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건축 마감 재료의 다양성으로 입면의 요소는 오히려 단정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종합적으로 현대적인 이미지로 전달될 수 있었다. 내부 공간적으로는 보다 연출적인 효과에 집중하게 되고 수직으로도 개방된 적극적인 공간감을 표현한다.

2006년도에서는 남서향의 입면에서 빛 조절장치가 디자인어휘와 함께 잘 정돈된 이미지로 전달되었다. 차양시설은 고정이지 아닌 가변성을 활용하여 입면은 수시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보편적이었던 점토벽돌 조적의 마감은 노출콘크리트의 마감재도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지역에서 랜드마크적인 중심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학교의 개별적 특성을 입면에서 담보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었으리 생각된다. 즉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차이는 입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한편으로는 더욱 휴먼스케일과 인간적인 공간의 이미지로 회귀를 시도하는 시설도 등장한다.

2007년도에서는 홈페이지가 학생들에게 적용되고 건물 내부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까지 인식하게 만든다. 행정관리부면에서도 외부 방문객의 출입에 동선을 고려하여 디자인되고, 학생들과의 적절한 분리를 배려한다. 안마당, 바깥마당은 학생들의 쉼터이며 이벤트 썸지 등의 친화력을 유도하도록 설계된다. 고등학교 교사의 입면 중에서는 알루미늄과 유리를 적극 활용하여 미래적이고 하이 테크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예술 고등학교는 특성에 적절한 기하학적인 이미지는 물론이고 다양한 연습실과 공연부 객석부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학교 전체가 퍼포먼스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장애 학교에서는 무장애는 물론이고 편안함을 만들기 위해서 박공비중의 입면을 도입하여 휴양의 개념을 일어낼 수도 있다.

2008년도는 예코와 지속가능성으로의 교육시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재료와 외피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파악된다. 설비 샤프트도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해 코아가 중앙에 있음에 반해 좌우 측면으로 분리 배치한다. 유지관리는 물론 시공성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연계성의 확보와 함께 시설간의 열린 공간의 유동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단순히 부품적 친환경의 개념이 아닌 유지관리 및 활용의 재구성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09년도에서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을 위해 주거단지 같은 배치 계획을 더욱 고려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시설을 집중하였으며 편의성도 이전보다 확장시켰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오감을 자극하는 디자인이 색채 등에서 시도되었다. 학교건축에서 곡성의 매스를 적용하여 부드러운 동선과 경관을 시도하며 다소 긴 방방향의 매스에 안정감을 부여 하였다. 이것은 오히려 협소할 수 있었던 인동간격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려했다. 대학교의 규모에서

는 비움과 소통, 관계와 기억 등.. 보다 개념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의 행위와 패턴을 읽어내려 한 시도가 있었다.

2010년도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위한 공간에 부분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면서 다양한 공간 체험의 장소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교실에서 외부공간으로의 접근을 배려하는 계획이 만들어지고, 각 층간에 휴게공간을 만들고 교사와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한다. 미래지향적인, 혹은 구체화를 위한 교육환경의 차별화와 이에 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던 시기며, 이미지를 위한 다양한 입면의 변화를 시도한다. 또한 남향에 대한 고려 이외에도 그린 축과 그린 아트리움 등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아이템은 계속 다루어진다. 외부공간에서 매스와 매스 사이에 자연 녹지를 유입하여 에코벨리를 적용해보기도 한다. 교과 교실 형 및 학년별 수업을 위한 디자인방법론은 새로운 모듈계획을 시도하고, 대중소의 강의실을 각 유닛별 책상의 배치에 따라 일반수업과 수준별 수업이 모두 가능한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한편 주차장을 집중화하여 공간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고 주변의 외부공원등과도 연계적인 배치 계획을 시도하였으며, 입면에서는 수평 루버 등을 활용하여 빛을 조절하는 장치는 물론 실내 공간의 새로운 연출이 적용된다. 교육과 놀이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환경장치물과 조경 아이템을 채택하기도 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배리어 프리를 적극 도입하여 장애물 없는 학교를 고려하였다. 한편 대학정도의 규모에서는 유비쿼터스를 캠퍼스에 구현하였고, 장애 확정성에 대한 고려가 전체 마스터 플랜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2011년도에서는 외부공간에서 테크의 적극적인 활용과 하이브리드 코트, 테라스 등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새로운 시도가 있었고, 외부재료의 적용에서도 알루미늄 슈트와 유리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외장 재료의 적용이 이전보다 과감하게 사용되었다. 필로티의 활용과 외부공간에서 열린 공간의 개념을 적용하여 내부 보행 동선의 활용은 물론 지역과의 교류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제안을 시도하였다. 패시브 친환경 공간의 아이디어로는 편복도 등을 통한 자연환기에 집중하였다. 열린 공간의 쾌적성과 다양한 표현의 장을 제공하려는 부분이 돋보인다.

그리고 끝으로 2012년도의 우수학교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주변 녹지의 흐름을 기술사, 식당, 교과동에 적극적으로 유도하였고, 각각의 매스사이에서 독립된 외부공간을 많이 두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부활동을 권장하는 디자인이 강조되었고, 체험마당, 중심보행가로 등을 두어 산책

과 휴게공간이 강조되었다. 교육 공간 내부에서는 교과목별 다목적 클러스터와 그룹핑 계획이 공간속에 적용되었고, 교무영역에서도 집약배치와 교무센터운영이 연구되었다. 특히 실내에서는 그린 아트리움 등의 내부공간연출에 집중하는 모습도 이전과는 차별화하는 공간으로 시도가 되었다. 또한 명확한 교과영역을 구성하면서도 유사교과를 층별 조닝 등의 디자인으로 풀어내어 이동 동선을 단축하려는 공간의 연출과 함께 시도가 있었다. 건축물 내부에서 효율적인 수직 동선 외에도, 외부에서도 비상차량 등의 순환성을 좀 더 고려하게 되었으며, 인지성과 소음관리에도 보다 섬세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운영상 필수적인 단열 성능과 함께 친환경 저에너지 설계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실질적인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과의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검증과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인 변화였다.

### 교육시설 15년

디자인과 건설에서 교육시설의 장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되돌아 볼 수 있다.

수많은 건축설계의 우수한 디자인 팀들과 건설인들이 그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통해 이루어온 업적은 진정 훌륭한 것이었다. 특히 우리 근대교육의 출발단계를 되돌아 보면, 지금의 디자인과 건설의 능력은 실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더구나 제도의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최대의 강점을 살리고, 많은 규칙 속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지난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해 이루어온 점진적인 시도와 변화가 여전히 교육이라는 민감하고 까다로운 보수성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 추측하게 되었다. 이를 이루어내는데 고정된 인식과 형식 그리고 여러 제반사항들에서도 소위 디자인이라는 자율적인 접근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된다.

사실, 지난 15년 동안 교육시설에서의 발전은 여전히 원칙이라는 틀과 불문율에서 작동해야 하고, 새로운 공간과 아이디어를 제안으로 시도하기에는 그 결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고려할 때 건축가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교육'의 문제를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 때문에 이 지점에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역시 교육의 역할을 일군 '건축'과 '제도'이다.

### 위대한 퇴보?

위대한 퇴보를 쓴 니얼 퍼거슨(Niall Campbell Douglas Ferguson)은 지난 5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서구중심 패권이 곧 무너질 것이라 예상한다. 그는 500년간 서구의 전 세계 지배유지 요인을 6가지로 정리한다. 1) 경쟁 장려 체제 2) 17세기 이후 과학혁명 3) 법치와 대의제 정치 확립 4) 19세기 이후 근대의학의 발달 5) 소비지향 사회체제 그리고 6) 근로윤리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장 먼저 따라 배우기 시작한 것이 1867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다. 이후 동아시아는 6가지 요인 중 경쟁체제와 대의제 정치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아들이면서 서구를 추격했다. 이제 일인당 GDP기준으로 싱가포르를 이미 미국을 앞섰으며, 홍콩은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과 대만은 25%정도, 한국은 36%정도 낮은 수준까지 근접했다. 그는 중국이 2027년 미국의 GDP를 추월해 세계 최대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서구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 우수한가도 돌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명의 네 기둥은 민주. 자본. 법치. 시민이다. 우리의 교육시설과 제도에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는?, 법치주의는?, 시민사회는?, 어떠한가..

에덤 스미스는 '국부론' (1776)에서 '과거 중국의 풍요로운 국가의 성장이 관료주의로 인한 법률과 제도로 몰락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퍼거슨의 '위대한 퇴보'(2013)에서는 서양의 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변화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정체상태에서는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제도와 시설의 형식은 어떠한가? 겉으로는 변화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정체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희생시켜 현재의 유권자 세대를 부양시켜야하고, 우리의 빛과 짐을 후대에 물려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지금의 교육제도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64% 올리고 지출을 40% 삭감해야하며, 원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세대 간의 '사회계약'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진정한 교육은 상위세대의 독단적인 결정과 진행으로 결국은 지금 길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 해석과 해법

길지 않은 시간을 인생으로 되돌아보면 하나의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다. 무엇이든 '복잡할수록 약점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교육제도와 필요이상의 건축 공간 서비스가 이 세대의 교육받을 학생들에게 처방이

아닌 질병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자 한다.

생명력이 있고 유지 가능한 시스템은 다소 거칠고 단조로울 수도 있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변이가 나타나기 쉬운 성향으로의 진보만이 진정한 진보의 역할이라고 이코노미스트 전 편집장인 월터 배젓이 지적해준다. 우리의 교육 공간은 그런 변이가 나타나기 쉬운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가? 다윈의 자연선택이론에서도 어떤 혁신이든 환경에 적응하고 얼마나 적합한가가 성공과 실패의 판가름한다고 했다.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공교육의 치료법으로 생물학적 다양성이 독점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의 교육시설공간과 제도에서도 수용하는 것을 다시 제안해 보고자 한다. 법치주의의 적은 언제나 악법이였다. 우리 건축제도와 교육제도에서 악법은 진정 소거되어있는가? 신약이 출시되는데 드는 비용의 증가와 그것이 시행되는데 필요한 시간의 증가를 되돌아보아도,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그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드는 비용은 60년 전보다 100배 더 든다면 이것이 현실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하여 적용되는데 드는 시간의 증가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또한 자율적이고 다양함의 적용에 대해서 걱정하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피해의 양은 실제의 현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정부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긍정적인 기능까지 관리하려는 오류를 줄여나가야 한다. 문명과 교육의 아이러니한 반비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한다. 법과 제도라는 자동항법장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혹은 진정 필요한 성장에서는 그 한계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필자와 동갑내기이기도 한 퍼거슨이 말한 서양의 위기는 곧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민첩한 대응력은 여전히 자유롭고 신선한 디자인 마인드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도서

1. 건축설계. 계획 (윤도근, 김형우, 임종엽 외 공저), 문운당
2. 우수시설학교(Excellent Education Facilities Contest), 교육과학기술부
3. 위대한 퇴보(니얼 퍼거슨), 21세기북스